

The Beast in the Jungle에 나타난 「生」의 意味

金 秀 宗

I

Henry James의 作品에는 Raymond Williams가 말하는 이른바 「歷史性」¹⁾이 없을런지는 모르나 社會性이나 道德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James의 作品은 藝術性에 치우친 나머지 life를 위한 edification이 缺如되어 있다는²⁾ 비난을 받는 것도 事實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道德意識이나 思想性を 無視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James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道德認識이나 社會認識이 있어서, 그것은 결코 表層的인 것이 아니며 단지 藝術을 위한 材料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James의 社會觀이나 道德觀은 그가 初期의 作品에서 後期の 作品에 이르기까지 一貫性있게 追求한 하나의 主題, 즉 「산다」는 것, 眞實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와 밀접한 關聯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言及하는 이른바 「산다」는 말은 自와 他的 連帶關係에서 「산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人生이란 人間關係를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James가 그의 作品 속에서 이 人間關係를 다루게 된 경우 거기에는 必然的으로 社會性이 內包되는 것이며, 他人과의 關係속에서 眞實하게 「산다」는 意味를 追求해 가는 그 態度는 바로 道德的인 態度와 連結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注目할 점은 똑같이 「산다」는 問題에 있어서도 男性과 女性에 따라 그 삶의 方式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 James의 特徵이 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女性의 경우를 살펴보면 Isabel Archer (*The Portrait of a Lady*)와 Milly Theale (*The Wings of the Dove*)를 거쳐 May Bartram (*The Beast in the Jungle*)과 Alice Staverton (*The Jolly Corner*)에 이르는 하나의 系譜를 想定할 수 있다. 이 女性들은 그들에

1) Raymond Williams,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London: Chatto & Windus, 1970), p.133.

2) Maxwell Geismar, *Henry James and His Cult* (London: Chatto & Windus, 1964), p.439.

게 주어진 狀況은 각각 다르지만 「산다」는 것의 眞實한 意味를 追求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共通性이 있다.

Isabel Archer는 人生, 즉 人間關係를 自由롭게 選擇해 나간 結果 利己의인 男便인 Osmond와 結婚하게 된다. Isabel이 男便의 欺瞞性을 看破하고서도 結局 男便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에는 여러가지 解釋이 可能하거니와 이것은 또한 James의 ambiguity를 낳게 하는 하나의 原因이 되기도 하지만, 그 한가지 解釋으로써 人間關係라고 하는 것은 自由롭게 選擇될 수 있는 것이라는 思考方式이 實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認識한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臨終時 Ralph가 Isabel에게 하는 말에서도 暗示되어 있다.

I always understood... though it was so strange— so pitiful. You wanted to look at life for yourself— but you were not allowed; you were punished for your wish...³⁾

이에 대하여 Isabel은 흐느껴 울면서 “Oh yes, I’ve been punished⁴⁾”라고 대답하고 있다. Osmond와 結婚하기까지의 Isabel의 世界는 ‘free expansion’과 ‘irresistible [action]’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自由를 束縛당하지 않고 自己의 自由意志를 中心으로 하여 選擇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選擇한 男便은 利己의인 人間이었으며 結婚함으로써 自由를 束縛당한 Isabel은 Ralph가 말하는 것처럼 人生을 自己의 意志로 選擇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罪라고 느끼고, 結婚함으로써, 그 罪에 대한 罰이 내려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Osmond에게로 돌아간 Isabel이 어떠한 方式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이 小說에 描寫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Milly Theale이 살았던 方式을 본다면 어느 程度는 推測할 수 있을것이다.

Milly Theale도 自由로운 意志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Isabel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Milly의 경우에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 넣는 不治의 病이 있어서 限定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므로, Isabel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緊迫한 狀態에 놓여 있다. Milly가 사는 方式에는 자기의 周圍에서 일어나는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態度가 역력히 보인다. 例를 들면 Bronzino의 場面에서 Milly의 存在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好奇心은 Milly나 Susan 때문이 아니다. Milly는 다만 「무엇이 일어나도 좋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⁵⁾라고 생각할 따름이다. 그리고 醫師인 Sir Luke Strett가 그녀에 대해서 “You must accept any form

3) Henry James, *The Portrait of a Lady* (New York: The Random House, Inc., 1852), Vol. II, p. 415

4) *Ibid.*, p. 415.

5) Henry James, *The Wings of the Dove*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58), Vol. 5, p. 240.

in which happiness may come”⁶⁾이라고 忠告할 때 Milly는 “Oh, I'll accept any whatever”⁷⁾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Milly의 態度는 人生, 즉 人間關係를 選擇한다는 態度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逆으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態度이다. Milly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녀를 둘러싼 社交界의 陰謀이며 背信이다. 最後에 Milly는 이 背信까지도 받아들여서 手段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Densher에게 遺産을 남겨준다. 이처럼 Milly는 背信者에 대해서 사랑을 “give and give and give”⁸⁾ 하면서 죽어간다. Milly의 경우에 眞實로 「산다」는 것은 오직 남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Isabel이 男便인 Osmond에 대해서 살았던 方式과 類似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人生, 즉 人間關係를 選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의 利己心이나 背信을 받아 들이면서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眞實한 삶이라고 規定하는 態度는 매우 puritan的인 道德意識과 關聯이 깊다는 점이다. James自身은 puritan은 아니었지만 puritanism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보이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온 道德意識이 특히 Milly의 行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Milly에게 具現된 James의 道德認識은 本稿에서 論述할 *The Beast in the Jungle*의 May Bartram 속에 明確히 表現되어 있다. *The Jolly Corner*의 Alice Staverton도 May와 같은 道德意識을 갖는 女性으로서 描寫되어 있다.

男性들의 경우에 Gilbert Osmond(*The portrait of a Lady*)와 Merton Densher(*The Wings of the Dove*)를 거쳐 John Marcher(*The Beast in the Jungle*)와 Spencer Brydon(*The Jolly Corner*)이 想定된다. 이들 男性은 女性들에 비해 眞實하게 「산다」는 이른바 道德的인 認識에 到達하는 것이 매우 늦다는 것이 그들의 特徵이 되고 있다.

Osmond는 Isabel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道德的 認識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Merton Densher는 Kate Croy의 鑄型에서 漸次 Milly Theale의 鑄型으로 變貌해 가서 最後에는 Milly의 鑄型속에 들어 가게 되지만 그가 Milly와의 不可分의 關係를 認識하게 되는 것은 Milly가 죽고난 후의 일이다.

다음으로 John Marcher와 May Bartram의 關係는 Densher와 Milly와의 關係보다도 集約的이고 集中的이며 強烈한 것으로 表現되어 있다. Marcher도 Densher처럼 May Bartram의 死後에 그녀와 자기와의 關係가 不可缺한 關係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關係야말로 Densher의 경우와는 달리 根本적으로 存在해야만 하는 關係인 것이며 John Marcher로서는 오직 May를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만 그의 運命을 回避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6) *Ibid.*, p.265.

7) *Ibid.*, p.265.

8) Henry James, *The Wings of the Dove*, Vol. 7, p.177.

眞實한 삶이었던 것이다. *The Jolly Corner*의 Spencer Brydon도 Marcher처럼 어떠한 固定觀念에 支配되지만 그의 경우에 多幸한 것은 Alice가 죽기 전에 自己의 egoism에 눈이 깨고 「산다」는 것의 眞實한 意味를 알게 된다.

本稿에서는 *The Beast in the Jungle*의 John Marcher와 May Bartam의 關係에 焦點을 맞추어 眞實한 「삶」의 意味를 具體的으로 檢討하기로 한다. 이것은 곧 그의 道德意識이나 思想性을 살피고 아울러 그의 創作上의 進展을 규명하는 일도 될 것이다.

II

John Marcher와 May Bartram은 나폴리에서 만나서 十年 後에 Weatherend 邸宅에서 再會한다. 이때 Marcher의 年令은 35歲이며 May는 30歲이다. 그 사이 10年이라는 歲月의 經過에도 不拘하고 두 사람을 連結시켜준 것은 Marcher가 그 옛날 May에게 말했던 그의 運命에 관한 秘密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運命이란 普通사람과 그를 區別하는 特異한 事件이 자기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Marcher의 嘆願에 의하여 들이는 이 特異한 運命的 事件의 到來의 監視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 運命에의 固定觀念은 그의 人生을 最後까지 支配해 가고 그를 사랑에 눈뜨지 못하게 한다. 한편 May는 그사이 변함없이 Marcher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補償받는 일도 없이 衰弱해서 죽는다.

그리고 讀者들은 이 이야기의 最後에 이르러 비로소 그 運命的 正體, 즉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運命을 알게 된다는 構成이 되어 있다. 그 사이는 Marcher 자신 뿐만 아니라 讀者들도 그 運命이 未知의 것이 되어 있는 점이 이 이야기를 매우 難解하게 하고 있으며, 同時에 undramatic한 題材를 dramatic하게 만들어 내는 役割을 하고 있다.

그러나 James는 May의 말을 통해서 처음부터 巧妙하게 이 運命的 正體를 暗示해 간다.

Isn't what you describe perhaps but the expectation— or at any rate the sense of denger, familiar to so many people of falling in love? 9)

즉 Marcher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사랑을 한다는 것의 危險이 아니냐고 暗示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Marcher는 사랑이라면 自己도 한 일이 있지만 그것은 自己를 壓倒할 것

9) Henry James, "The Beast in the Jungle", *The Portable Henry James*, ed. Morton Dauwen Zabel, p.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6) 337.

같은 것도 아니었으며 運命的인 事件으로서는 奇妙한 것도 아니었고 自己가 待望하고 있는 것과 같은 偉大한 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것에 대하여 May는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이 Marcher의 대답이야말로 그의 「사랑」이라고 한 것에 대한 思考方式을 顯示하는 것으로 여기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Marcher의 特別한 運命이 豫示되어 있다.

秘密을 알고 있는 May에게 그와 같이 運命的인 事件을 監視해 주도록 依賴하는 Marcher에 대하여 May가 대답하는 “Are you afraid?”¹⁰⁾란 말에는 또한 그의 運命 그 自体를 暗示하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Are you afraid?”라는 말을 完結시킨다면 “Are you afraid (of falling in love?)”가 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Marcher는 “I don’t know. And I should like to know.”¹¹⁾라고 대답한다. 「모른다」는 것은 이 時点에서는 아직 그의 運命을 바꿀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만약 그에게 ‘afraid’란 생각이 없다면 完全히 모든 것은 結定되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아직 이 時点에서는 그의 嘆願에 응해서 May는 “I’ll watch with you”¹²⁾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運命的인 事件을 監視하기 시작한 두 사람이지만 그 運命을 回避할 可能性이 거의 없다는 것이 Marcher의 May와의 관계에 대한 態度나 그 運命에 대하여 품고 있는 思考에 나타나 있다. 먼저 May와의 關係에 대해서 본다면 여태껏 秘密을 자기에게만 限定시켜 두고 他人에게 弊를 끼치지 않았던 Marcher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uns elfish’하며 ‘the most disinterested person’¹³⁾이라고 생각한다. May에 대해서도 弊를 끼치지 않겠다. 利己의이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意識하는 Marcher이지만 May가 허락해 주는 限度內에서는 “to be selfish just a little”¹⁴⁾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態度야말로 매우 危險한 것이다. 왜냐하면 May가 허락하는 限界內에서란 말은 逆으로 May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것에 比例해서는 Marcher는 無限히 利己의이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May의 Marcher에 대한 献身은 實로 無限한 것이므로 이러한 思考方式은 바로 합정이 되는 것이다.

이 Marcher의 思考方式은 나아가서 May와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態度에 잘 表現되어 있다.

10) *Ibid.*, p. 338.

11) *Ibid.*, p. 339.

12) *Ibid.*, p. 339.

13) *Ibid.*, p. 342.

14) *Ibid.*, p. 342.

All this naturally was a sign of how much he took the intercourse itself for granted. There was nothing more to be done about that. It was simply existed; had sprung into being with her first penetrating question to him in the autumn light there at Weatherend.¹⁵⁾

自然스럽게 成立되었고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할 關係이며 그 이상은 添加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關係야 말로 Raymond Williams가 말하는 「given」¹⁶⁾된 關係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May가 후에 말하는 「마침내 不可缺한 것이 되었던 男女의 關係, 즉 극히 普通的 關係」¹⁷⁾인 것이다. 이 不可缺의 關係를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Marcher의 잘못이 있다. 즉 必然적인 關係는 'given'된 關係라는 認識이 缺如되어 있는 것이다. 不可缺한 關係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살아야만 하는 關係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關係를 밀고 나가면 必然적으로 結婚에 到達하게 될 關係인데, 이것이 度外視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Marcher가 품는 그의 運命에의 固定觀念의 性格에 起因한다. 그는 그가 待望하는 運命의 事件을 'a crouching beast in the jungle'¹⁸⁾이란 image로 捕捉하여 범사냥을 가는데 女性을 帶同할 수는 없는 'a man of feeling'¹⁹⁾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 이것은 일견 正當한 생각같이 보이나, 不可缺한 關係 이상으로 自己의 運命을 重視하는 Marcher의 態度는 ironical하게도 'man of feeling'이라고 呼稱될 人物의 態度는 아니며, 또한 그의 「사랑」이라고 한 것에 대한 前述한 觀念과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叔母의 死後에 London으로 移住하고 Marcher와의 友好關係를 持續해 가는 May는 그가 他人에 대하여, 社會에 대하여 대응하는 태도와 그 自身の 本心사이의 'detachment'를 확실히 看破하고 있다. 그는 「社交의 거짓의 옷음으로 채색된 마스크」²⁰⁾를 써서 社會를 기만하고 있으며 社會쪽에서는 結婚도 하지 않고 長期間 交際를 계속하는 두 사람의 關係를 異常하게 생각하면서도 May가 調整하는 'concealing veil' 때문에 眞實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를 欺瞞하는 이 마스크는 이후 漸次 흔들려서 最後에는 그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社會로부터 復讐를 당하는 破局을 招來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時間이 걸린다. 그리고 둘이 監視를 繼續한다는 約束을 遂行하는 것은 May도 Marcher와 同化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져 감에 따라서 May의 態度는 Marcher처럼 「社會的

15) Ibid., pp.342-343.

16) Raymond Williams, *op. cit.*, pp.66-68.

17) Henry James, "The Beast in the Jungle", *op. cit.*, p.346

18) Ibid., p.343.

19) Ibid., p.343.

20) Ibid., p.345.

인 意味에서는 그녀의 眞實한 모습을 僞裝하는 것²¹⁾이 된다. 물론 그녀 自身の 모습은 그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公表한다는 것은 Marcher의 固定觀念의 性格上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May의 말에는 Marcher에게 運命의 實態를 暗示하는 것 같은 意味가 이따금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그것은 앞에서도 言及했듯이 두 사람의 關係가 習性화된 不可缺한 關係가 되었다든가 「나는 당신의 鈍感한 여자이며 당신이 평소애 教會에서 祈禱드리는 食糧의 一部分입니다」²²⁾라고 말하는 데에 나타나 있다. 두 사람의 關係가 不可缺하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그의 「日常의 食糧의 一部分」이라는 것은 그녀는 그의 生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임을 暗示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을 理解하지 못하는 Marcher는 “only what is it that saves you? I often think, you know, of that”²³⁾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May는 直接 대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長期間 監視해 온 結果 May는 그들에게 주어진 狀況을 充分히 깨닫게 된다. 그때가 되어서 Marcher는 “I judge...that you see I'm not afraid now”²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May에게 “Are you afraid?”라는 質問을 받고 “I don't know”라고 대답했던 Marcher의 長年の 歲月이 경과한 후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May가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이 Marcher의 말에 符合되고 있지만 Marcher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意味에서 符合되고 있는 것이다.

May가 “There has been days when I thought you were(afraid)”²⁵⁾라고 말한 眞意는 “There has been days when I thought you were afraid (of falling in love)”이다. 이것의 眞意는 아직도 그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그에게서 發見한 것은 그와는 다른 것이다.

What I see is, as I make it out, that you've achieved something almost unprecedented in the way of getting used to danger. Living with it so long and so closely you've lost your sense of it; you know it's there, but you're indifferent, and you cease even, as of cold, to have to whistle in the dark. Considering what the danger is... I'm bound to say I don't think your attitude would well be surpassed.²⁶⁾

21) *Ibid.*, p. 345.

22) *Ibid.*, p. 347.

23) *Ibid.*, p. 347.

24) *Ibid.*, p. 350.

25) *Ibid.*, p. 350.

26) *Ibid.*, p. 350.

죽 사람을 사랑한다는 「위험」 속에 언제나 놓였던 Marcher는 이제와서는 익숙해져서 무관심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 May의 眞意인 것이다. May야 말로 바로 그 危險의 對象이 되어서 늘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 眞意를 理解하지 못하는 Marcher이지만 그녀가 그의 運命의 正체를 알고 있는 것을 눈치챈다. 그러나 May가 結論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그러한 無關心하게 된 그가 自己의 運命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 May가 말했던 特別한 意味가 있는 말, 'Are you afraid?'의 하나의 結末이 上述한 引用文에 의해서 Marcher에게 주어진 것이 되며, May 側에서의 監視는 이후도 繼續되지만 實質적으로는 일단 끝나게 되는 것이다.



May는 Marcher의 運命의 正체를 알고 그녀 側에서의 監視의 役割을 일단 끝나게 된 May였지만 그후 그녀가 선택한 삶은 James의 主要한 女主人공들이 선택한 것과 유사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물론 두 사람의 親密한 關係이다. 그 關係는 Marcher에게는 그의 特異한 삶의 方式을 隱蔽하기 위한 手段이 되고 있는 것에 反하여 May에게는 그 關係는 그 自体를 위하여 살 目的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May가 使用하는 'humanly'라는 말의 意味와 Marcher가 理解하는 'humanly'라는 意味와는 두 사람의 相異를 暗示하고 있으며 또한 「당신이 보통 남자와 다르지 않게 보이도록 돕는 일이나 하나의 關心事의 모두입니다」²⁷⁾라고 말하는 May의 말의 眞意와 Marcher가 받아들이는 意味와의 사이에도 두 사람의 相異함이 드러나 있다. 진정한 意味에서 平凡한 男子가 되기 위해서는 Marcher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일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May의 眞意인 데도 Marcher는 지금까지 처럼 世上에 대해서 자기가 平凡한 男子로 通用되도록 自己와의 친밀한 關係를 유지해 준다는 것이 May의 意味라고 解釋한다. 두 사람의 解釋의 錯誤때문에 이따금 當感하는 May이지만 「지금까지 대로 해주세요」²⁸⁾라고 말하고 그녀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처럼 계속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May는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病에 걸려 점점 衰弱해 간다.

한편 Marcher 側에서도 지금까지의 삶의 方式은 自己가 無視해 왔던 時間의 經過의 認識에 의하여 調整되고 그대로 踏襲하지 못하게 된다. May의 衰弱하고 年老한 얼굴은 自己自身에게 年老한 것을 想起시키고 그 생각은 同時에 自己의 運命的인 事件도 時間의 制約下에 있었다는

27) *Ibid.*, p. 353.

28) *Ibid.*, p. 353.

생각에 到達하게 한다. 그리고 Marcher는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지 않았냐는 생각에 達着한다. 時間의 經過의 認識에 의하여 惹起되는 가지가지의 驚異는 지금까지 그가 維持해 왔던 저 ‘inner detachment’²⁹⁾를 威脅하게 되며,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方式은 기필코 틀리지 않았더라는 切迫한 感情에 쫓기게 된다.

四月의 어느 오후 病든 May를 訪問한 Marcher는 May가 있는 場面이 「부드럽고 最終的인 樣相」³⁰⁾을 띠고 모든 것이 完了되고 그녀가 할 일이 모두 끝나버린 것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한 Marcher의 눈에 反映되는 May의 모습은 이러했다.

—She was the picture of the serene and exquisite but impenetrable sphinx... She was a sphinx, yet with her white petals and green fronds she might have been a lily too—only an artificial lily, wonderfully imitated and constantly kept, without dust or stain, though not exempt from a slight droop and a complexity of faint creases, under some clear glass bell.³¹⁾

May가 sphinx인 것은 Marcher에게는 그녀가 수수께끼의 여자—그의 ‘運命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女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造花의 百合」은 더럽혀지지 않고 永遠히 存在하기는 하지만 生命이 없는 百合이며, 生命을 가질 수 없는 百合이 된 것은 Marcher에 의해서 항상 透明한 유리鏡 속에, 다시 말해서 사랑이 缺乏된 Marcher의 世界 속에 집어 넣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造花의 百合」인 May의 눈은 젊은 날의 그녀의 눈의 아름다움을 再現시키고 있다. 아름다운 눈은 봄날 저녁 노을의 ‘the hard sweetness’³²⁾ 때문이더라도 한듯 ‘a strange cold light’³³⁾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눈은 말하는 途中에 ‘the high flicker of their prime’³⁴⁾을 띠고 그 때까지 그녀가 진실로 意味해 왔던 것으로, 그에게는 理解될 수 없었던 眞意를 表明하고 最終적으로 그를 그 運命에서 救援해 주려는 모습을 暗示하는 눈이 되어 있다.

Marcher는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금이갈까 두려워서 회피해 왔던 重大한 質問을 한다.

29) *Ibid.*, p. 355.

30) *Ibid.*, p. 359.

31) *Ibid.*, p. 359.

32) *Ibid.*, p. 361.

33) *Ibid.*, p. 361.

34) *Ibid.*, p. 361.

You know something I don't, You've shown me that before.³⁵⁾

이 質問을 追求해 가는 Marcher는 그 날의 May의 모습이나 態度가 그와는 判異한 것을 보고 “You leave me to my fate”³⁶⁾라고 말한다. May는 마침내 그 something을 알고 있다고 是認하는 말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May에 대하여 Marcher는 再次 “You abandon me”³⁷⁾라고 呼訴한다. 그러자 May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確信시키기라도 하는 듯이 病든 몸을 椅子에서 일으킨다.

But the cold charm in her eyes had spread, as he hovered before him, to all the rest of her person, so that it was for the minute almost a recovery of youth.³⁸⁾

젊은 날의 그녀의 모습의 再現을 想起시키는 그녀의 눈의 ‘cold charm’은 上述한 ‘a strange cold light’와 ‘the high flicker of their prime’과 더불어 그녀의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의 運命回避의 最後의 機會를 提供하고 있는 눈인 것이다. 그러나 May의 눈을 ‘cold’하게 하고 있는 것은 늦은 봄, 즉 사랑의 認識에 눈이 뜨지 않고 따뜻한 봄을 認識할 수 없었던 Marcher의 egoism이며 Edward Stone이 指摘하듯이 March(er)의 冷々함은 May(Bartram)의 따뜻함으로 變化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無情하고 冷冷한 April이 介在하고 있는 것이다.³⁹⁾

He couldn't pity her for that; he could only take her as she showed— as capable even yet of helping him. It was as if, at the same time, her light might at any instant, go out; wherefore he must make the most of it.⁴⁰⁾

위에서 ‘He could only take her as she showed’는 前述한 ‘he took the intercourse itself for granted’와 마찬가지로 Marcher가 May와의 關係를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35) *Ibid.*, p.362.

36) *Ibid.*, p.362.

37) *Ibid.*, p.363.

38) *Ibid.*, p.363.

39) Edward Stone, “James's Jungle: The Seasons”, *Henry James: Seven Stories and Studies*, ed. Edward Stone, pp.256—258.

40) Henry James, “The Beast in the Jungle”, *op. cit.*, p.363.

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wherefore he must make the most of it’에서도 알 수 있듯이 Marcher의 egoism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날 May의 첫번째의 試圖, 자기의 사랑의 示顯, 즉 運命回避의 機會의 提供은 完全히 失敗한다.

그러나 「문을 열려 있어요」⁴¹⁾라고 말하면서 May는 再次 그 ‘cold sweet eyes’를 그에게 돌린다.

“It’s never too late”. She had, with her gliding step, diminished the distance between them, and she stood nearer to him, close to him a minute, as if still charged with the unspoken.⁴²⁾

May는 再次 自己의 사랑을 暗示한다. 그러나 무엇인가 자기에겐 출 것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Marcher는 그 意味를 理解하지 못하고 두번째 試圖도 失敗한다. 그녀가 “You don’t know—now?”⁴³⁾라고 묻는데 대하여 Marcher는 “Now—?”하고 理解 不可能한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따름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I know nothing”하고 대답했을 때 May는 “Oh”하고 한탄하면서 방을 나간다. 그 때 Marcher는 쫓아가면서 “What then has happened?”하고 묻지만 May는 “What was to”하고 대답할 뿐이다.

두번이나 그녀의 사랑을 顯示받고 運命回避의 機會를 提供받고도 그것을 理解하지 못했던 Marcher에게 「일어날 것으로 豫想했던 일」이 회피되지 않고 일어나 버렸다는 것이 May가 뜻하는 것이다.

VI

Marcher는 再次 May를 訪問했으나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홀로 Kensington 공원에 가서 자기에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한다. 일어날 일, 그리고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란 그녀가 죽어간다는 것, 그녀의 죽음, 그것에 따르는 그의 孤獨—이것이 자기의 ‘The beast in the Jungle’이라고 생각했었던, 神의 手中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特別한 運命은 아니며 「普通 人間의 運命」⁴⁴⁾에

41) *Ibid.*, p.365.

42) *Ibid.*, p.365.

43) *Ibid.*, p.366.

44) *Ibid.*, p.367.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充分하다. 自己의 pride를 꺾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Marcher는 생각한다. 이처럼 可憐한 Marcher에게는 「가없는 溫情이 가장있고 차가운 苦痛이 가장없는다」⁴⁵⁾ 그의 解釋이 있을 뿐이다.

머칠 후 May는 Marcher를 만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동안에 그의 固定觀念을 打破하고 그로 하여금 그 苦惱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그녀 自身의 마음의 平和」⁴⁶⁾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May는 「당신은 이 이상 기다릴 것이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이미 일어났으니 까요」⁴⁷⁾라고 強調한다. Marcher는 자기가 모르는데 일어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反論한다. 그래도 May가 그것은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Marcher는 이렇게 反論한다.

Nothing for me, is past: nothing will pass till I pass myself, which I prey by stars may be as soon as possible. Say, however... that I've eaten my cake, as you contend, to the last crumb- how can the thing I've never felt at all be the thing I wasmarked out to feel?⁴⁸⁾

Marcher는 자기의 運命이 當然히 느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듯이 자기의 感覺을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May와의 關係를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Marcher의 態度이기도 하다. 그리고 實際 이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態度가 그에게 그 運命을 自覺시키지 못했던 最大의 原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態度는 May에 의해서 訂正된다.

“You take your ‘feelings’ for granted. You were to suffer your fate. That was not necessarily to know it.”⁴⁹⁾

May가 Marcher에 대해서 취했던 態度는 사랑한다는 것을 暗示함으로써 運命的 事件을 그로 하여금 回避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事件이 일어나 버린 以上 最後에 May가 意圖하는 것은 Marcher에게 그의 運命的 正체를 自覺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 運命的 正체를 느끼

45) *Ibid.*, p.367.

46) *Ibid.*, p.368.

47) *Ibid.*, p.368.

48) *Ibid.*, p.371.

49) *Ibid.*, p.371.

는 것은 그가 苦痛을 받는 일이며, May는 絶對로 그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는 것이다.

“Don’t know— when you needn’t,” she mercifully merged. “You needn’t— for we shouldn’t.”⁵⁰⁾

運命의 正體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던가를 그녀의 말이나 야윈 얼굴에서 알아차린 Marcher는 「그렇다면 당신이 죽어가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이군요」⁵¹⁾라고 묻는다. 이 말에 대하여 May는

“I would live for you still- if I could.” Her eyes closed for a little as if, withdrawn into herself, she was for the last time trying. “But I can’t!” she said as she raised them again to take leave of him.⁵²⁾

얼마 후 May는 죽어가지만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May의 말에서 *The Wings of the Dove*의 Milly Theale의 말이 생각난다. Susan이 Milly에게 느꼈던 저 「뼈아픈 pathos」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實際로 그녀가 말했듯이 May의 生涯는 그를 위하여 살았던 生涯였던 것이다. May가 죽기 직전에 Marcher는 그녀의 房에 出入하는 것을 禁止당하고 葬禮時에도 사람들에게 May와는 거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取扱받는다. Marcher는 May를 잃어버리고 同時에 社會가 그녀와의 關係를 全然 認定해 주지 않는다는 二重剝奪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는 더없이 ‘indispensable’한 存在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當然히 그녀에 대한 權利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It was as if in the view of society he had not been markedly bereaved, as if there still failed some sign or proof of it, and if none the less his character could never be affirmed nor the deficiency ever made up.⁵³⁾

May가 그에게 ‘indispensable’했다면 그것에 均衡있는 方途를 취했어야만 했다. 不可缺한것을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中心을 이루는 關係로써 살았어야만 했다. 그

50) *Ibid.*, p.372.

51) *Ibid.*, p.372.

52) *Ibid.*, p.372.

53) *Ibid.*, p.373.

렇지 않았던 그에게는 그 不可缺한 關係를 證明할 證據가 缺如된 것은 當然하며 「mask」를 쓰는 일에 의해서 社會를 기만해 왔던 그는 May의 죽음에 임하여 逆으로 社會로부터 復讐를 받게 되는 것이다. Marcher自身이 생각하는 것처럼 May와의 親密한, 「不可缺」한 關係를 主張하는 것이라면 「더 일찌기 시작했어야 했던」⁵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秘密을 公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제와서 野獸가 없어진 jungle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公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Marcher의 論理이다.

Marcher는 野獸가 없어지고 生命이 없어져서 넓어진 自己의 心中을 여기저기 일찌기 野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곳을 探究하는 狀態가 된다. 그는 이제야 May가 그에게 保證했던 野獸가 그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라고 한 말을 完全히 믿는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 버린 이상 未來에 대한 恐怖는 없을 것이고 또 希望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問題點이란 도대체 자기의 過去가 어떠한 것이었던가 라는 未解決의 問題의 凝視가 된다. 다시 말해서 野獸의 正體란 도대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이었던가 라는 問題의 探究가 Marcher의 唯一한 問題가 된다. Marcher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하여 旅行을 떠나기 前에 May의 무덤을 訪問하여 그 무덤이 秘藏하고 있는 秘密을 알아 내려고 한다. 그러나 生前의 May의 빛을 내던 눈은 없고 그 代身에 아무런 빛도 放射하지 않는 May Bartram의 두 글자가 墓碑에 새겨져 있었을 뿐이다.

V

Marcher는 그 以後 一年間 旅行을 떠나 Egypt, India 등지를 訪問한다. 그동안 그가 自覺한 것은 現在의 自己는 平凡한 人間일 뿐이며 過去의 自己만이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衰弱했지만 往年에는 20회나 決鬪을 하고 10人の 아가씨에 사랑을 받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英雄에 Marcher는 自我를 比喩해 본다. 그러나 그들과 Marcher의 相異는

They indeed had been wondrous for others while he was but wondrous for himself.⁵⁵⁾

自己에게만 매력이 있었던 存在밖에 안됐던 그에게는 매력을 再現하기 위하여 돌아갈 場所

54) *Ibid.*, p. 373.

55) *Ibid.*, p. 377.

는 「그의 過去の 榮光의 唯一한 證人」⁵⁶⁾인 May의 무덤 뿐이다. 그 무덤의 잔디 밑에 잠 들고 있는 사람은 그의 特異한 經驗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場所는 그에게는 前처럼 아무 도 말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It(the place) met him in mildness— not, as before, in mockery; it wore for him the aim of conscious greeting that we find, after absence, in things that have closely belonged to us and which seems to confess of themselves to the connection. The plot of ground, the graven tablet, the tended flowers affected him so as beloging to him that heresembled for the hour a contented landlord viewing a piece of property.⁵⁷⁾

여기에서 Marcher에 의한 自와 他的 關係의 自覺을 볼 수 있다. 무덤은 이제 그와 깊은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Marcher가 그 무덤, 즉 May와의 關係를 아직도 事物, 자기가 所持하는 事物로 看做하고 있는 점이다. May가 살아왔던 人生은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事物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Marcher에게는 할 수 없었던 일이며 지금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후에 Marcher는 定期的으로 이 무덤을 訪問하게 되고 最後에는 ‘this garden of death’⁵⁸⁾만 이 그를 살게해 주는 唯一한 좁은 場所가 되고 여기에 있어서만 그도 自己의 모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May의 무덤은 過去の 事實, 그의 人生의 眞實이 記錄된 책의 ‘open page’가 되고 過去에 산다는 것이 그의 唯一한 삶이 된다. 여기에서는 現在의 自己는 過去の 自己와 一体가 되고, 基点을 이루는 第三者, 즉 May의 周圍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기는 일찌기 살았었다」⁵⁹⁾라는 것이 그의 現在의 산다는 것의 支柱가 됨과 同時에 自己의 identity를 證明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garden of love’가 아니라 ‘garden of death’라는 말이야 말로 그의 이때까지의 人生을 象徴하는 말이며 지금 Marcher가 生命을 依持하는 것은 實은 죽은 過去는 것이다. Marcher의 과거는 眞實한 意味에서 산 過去가 아니라 「살았다」고 생각하는 Marcher의 思考는 實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의 眞實한 意味가 顯示되는 때가 마침내 到來한다.

어느 회색빛이 감도는 가을 날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 전에 死別하고 悲痛해 하는 中年의 사나이와의 遭遇가 May를 잃고난 후 그날까지 意識의 底邊에 깔렸던 眞實의 【導火線에 우

56) *Ibid.*, p. 376.

57) *Ibid.*, p. 377.

58) *Ibid.*, p. 378.

59) *Ibid.*, p. 378.

연히 불을 붙였다. 이 사나이에게 나타난 깊은 傷處입은 表情, 고민하는 表情만이 Marcher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表情은 Marcher가 이 墓地에서 「익숙해져서 태연해진 모양」⁶⁰⁾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이 점이 Marcher에 疑問을 품게 한다. 「그것을 잃고 그렇게 傷處를 입으면서 그래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그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가」⁶¹⁾ 이 疑問은 Marcher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을 認識케 한다. 즉 中年의 男子가 나타내고 있는 表情이야말로 「情熱」이라는 것이며 바로 이것을 Marcher는 한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May를 잃고서도 그는 이러한 苦惱를 느낀 일이 없었던 것이다.

He had seen outside of his life, not learned it within, the way a woman was mourned when she had been loved for herself: such was the force of his conviction of the meaning of the stranger's face...⁶²⁾

여성이 眞實로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여성은 이토록 애처롭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經驗하지 못한 것이라는 認識에 Marcher는 到達한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凝視하는 것은 「그의 人生의 깊은 空虛」⁶³⁾인 것이다. 이때까지의 그의 人生은 榮光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살았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가 또다시 그녀의 무덤으로 눈을 돌릴 때 그 'open page'는 이때까지처럼 그의 過去의 榮光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바로 그가 잃었던 것」⁶⁴⁾이라고 전하는 말로 變化한다. 이런 것이 그의 過去의 모두에 대하여, 그의 幻想에 대한 무서운 대답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끔 定해졌던 사나이」⁶⁵⁾가 自己였다는 스스로의 運命을 Marcher는 깨닫는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이며 기다린다는 自体가 그의 運命이었던 것이다. 다음의 말에 산다는 것의 眞實한 意味가 集約되어 있다.

The escape(from his doom) would have been to love her: then, then he would have lived. She had lived— who could say now with what passion?— since she had loved him for himself: whereas he had never thought of her (ah how it hugely glared at him!) but in the chill of his egotism and her light of her use.⁶⁶⁾

60) *Ibid.*, p. 380.

61) *Ibid.*, p. 381.

62) *Ibid.*, p. 381.

63) *Ibid.*, p. 381.

64) *Ibid.*, p. 382.

65) *Ibid.*, p. 382.

66) *Ibid.*, p. 382.

眞實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며 眞實로 살았던 것은 Marcher를 眞情으로 사랑했던 May였다. 그리고 May와의 不可缺한 關係를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May의 態度는 實은 egoism이었던 것이다.

VI

以上에서 James가 May Bartram의 獻身的인 사랑과 John Marcher의 利己主義라는 두 개의 相反되는 性格을 交錯, 對比시킴으로써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眞실을 提示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삶의 意味를 追求해 가는 이면에는 그의 道德意識이나 思想性 내지는 創作上의 進展의 과정도 엿볼 수 있었다.

Marcher는 情熱을 모르고 行動性이 없는 James의 特徵인 男性主人公이다. 그가 살았던 방식에는 一見 comical한 要素가 다분히 있어 보이지만 그가 遭遇했던 것과 같은 危險은 우리들 周圍에, 그리고 우리들 自身の 潜在된 意識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며 누구구나 그러한 危險을 犯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動機에는 비록 Osmond나 Densher가 支配되었던 것과 같은 物質的인 世界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固定觀念이 자아낸 엄청난 利己主義는 物質主義에 못지않은 비속한 것이며 그것은 May의 순수한 사랑을 理解하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그녀를 희생시켰던 것이다. James는 이와같은 利己主義를 排斥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Marcher는 뒤늦게 사랑한다는 것의 眞實을 認識하게 된다. 즉 그는 스스로의 과오를 인식하고 그 인식에 의해서 從來의 自己가 살았던 次元에서 한단계 위의 次元으로 비약하여 스스로의 價値를 회복한 것이다. 이처럼 作品의 最後에서 반드시 비약이 일어나는 것이 James의 後期 作品의 特徵이다. 다시 말해서 物質的인 次元에서 精神的인 次元으로의 비약, 즉 倫理的 歸結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物質的인 敗北를 통하여 精神的인 勝利를 얻는 것은 puritanism의 最良의 精髓이다. James가 젊은 시절 품었던 美國的 理想, 眞실한 puritanism의 精神이 그의 가슴속에 再生되었으며, 그것이 眞實한 삶의 意味와 關係해서 一貫性있게 그의 道德意識의 주변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May Bartram에게는 지나치게 puritan적인 道德이 理想化되고 具現된 느낌이 있다. 그러나 그녀가 살았던 방식에는 James의 理想的인 女性의 生活像이 投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Marcher의 利己主義에서 비롯된 우둔함에도 不拘하고 오직 높은 次元에서 그를 사랑하고 忍耐와 寬容을 베풀면서 죽어갔다. 이러한 May의 高潔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The Wings of the Dove*의 Densher가 Milly의 추억을 戀慕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처음에

自己의 運命에 대한 固定觀念에 支配되었던 Marcher는 May의 추억에 支配된 運命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랑을 찬양하는 James의 思想의 斷片이 있다.

James는 *The Beast in the Jungle*을 비롯한 후기의 作品에서 인간신뢰를 회복하고 自身을 作品에 投入하고 있다. 이것은 May를 희생시켰던 Marcher를 Osmond와 같은 惡人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同情的인 눈으로 보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James는 만년에 이르러 *The Ambassadors*의 Strether처럼 人生을 얼마 살지 못했던 것을 認識하고 있었다. 그러한 自身의 모습이 이 作品의 Marcher에게 投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가 創作한다는 것은 살지 않았던 過去를 보충하는, 말하자면 代償經驗이었던 것이다.

— Summary —

The Meaning of Life in *The Beast in the Jungle*

Kim Soo-jong

The work of Henry James, though it seems to be a lack of the edification (moral or spiritual instruction) for life, doesn't disregard moral sense or thought. His moral or social consciousness is closely concerned with the consistent quest of life.

In the pursuit of life the figure of Jamesian hero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his heroine. His heroine falls in the sacrificial love with his hero and she is sincerely puritan. His hero is, on the other hand, late to recognize moral sense. This case can be found in the two protagonists of *The Beast in the Jungle*, John Marcher and May Bartram. Marcher doesn't understand May's genuine love to the last because of egoism caused by his fixed idea. But May loves Marcher and dies with patience and tolerance.

In this work James suggests that to love is to live a true life as compared with May's devotional love and Marcher's egoism. James criticizes the material egoism and admires love. Especially, in his later works including *The Beast in the Jungle*, James recovers trust of man. The figure of James is vivid in Marcher who sees the truth of his life later. Jamesian creative attractiveness is a kind of compensation experience where he fills up the unexperienced past of his life.